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AI 활용 번역의 교육적 의미

— 학습자 직접 번역 활동을 중심으로 —

김 영 인*

<目 次>

I. 서론	IV. 직접 번역과 AI 보조수정 양상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V. AI 중한번역 수업의 교육적 의미
III. 연구 방법	VI. 결론

<중문초록>

本文以本科“AI中韩翻译练习”课程中的学习者翻译资料为对象，考察AI辅助翻译活动在中韩翻译教学中的教育意义。研究资料来自2026学年第一学期16名学习者围绕5篇中文文本完成的系列任务，包括直接译文、翻译难点标注、提示词、AI辅助修改结果、最终译文以及自我分析。本文关注学习者如何在直接翻译中发现问题，如何将词汇、句法、文化词语和文体等难点转化为提示词，并如何在比较AI修改结果与自身译文的过程中重新调整最终译文。分析显示，学习者能够在直接翻译阶段意识到原文理解和译文表达中的具体难点，并通过提示词将这些问题进一步明确化；在此基础上，他们将AI辅助修改结果与自己的译文进行比较，在最终译文中选择性地接受、部分接受或拒绝AI的修改建议。由此可见，AI辅助翻译活动若被置于原文理解、问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题识别、提示词撰写、结果比较和译文再修改的连续过程中, 便不只是提高译文流畅度的工具, 而可以成为学习者以自身翻译目标为参照、借助AI输出进行反馈式检查与调整的学习活动, 从而促进其原文理解、表达选择、自我监控和批判性AI使用能力。

I. 서론

AI의 번역문은 유창하다. 그리고 그럴듯하다. 문제는 그 그럴듯함에 있다. AI 번역문이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울수록 학습자는 그 번역 결과가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번역문이 유창하다고 그것이 원문을 충실히 반영했다거나 적합한 번역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 중국어 학습자의 증한번역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어 원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어 표현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AI 활용 번역 수업은 AI 사용의 순서와 역할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원문을 직접 번역해보기도 전에 AI 번역문부터 접하면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표현상의 한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먼저 직접 번역한 뒤에 수정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의 번역문과 AI 수정문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스스로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도착어는 자연스러운지, 장르에 적합한 문체를 썼는지, 원문 정보가 빠지거나 더해지지 않는지 등을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AI 증한번역 연습’ 수업에서 수행된 직접 번역 기반 AI 활용 활동을 분석한다. 해당 수업에서 학습자는 먼저 중국어 원문을 직접 번역하면서 번역이 특히 어려웠던 부분을 스스로 표시하고 난 후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AI를 활용해 수정하였고, AI 수정문과 자신의 번역문, 원문을 다시 비교하면서 최종 번역문

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산출된 학습자의 직접 번역문, 난점 표시, 프롬프트 작성, AI 보조수정 비교¹⁾, 최종 번역문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직접 번역을 선행한 AI 활용 활동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학습자의 산출, 문제 언어화, 피드백 활용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해당 활동이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학부 중국어 학습자는 직접 번역 단계에서 어떤 난점을 인식하는가?
- (2) 학습자의 프롬프트에는 직접 번역문에 대한 문제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 (3) AI 보조수정 결과는 학습자의 최종 번역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4) 이러한 활동 과정은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AI 및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 교육 연구는 번역 산출물의 품질 평가에서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검토하며 수정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김은영(2021)은 AI 기계번역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포스트에디팅 수업 사례를 통해 논의하면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학습자가 수정, 검토하는 활동이 외국어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산화

1) 본 연구에서 ‘AI 보조수정’은 학습자가 작성한 직접 번역문을 AI에 입력하여 수정하는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초벌번역문을 학습자가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활동과는 분석 대상과 활동의 출발점이 다르다.

(2023)는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챗GPT를 적용한 번역 수업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고, 지윤주·이상빈·이선우(2023)는 학부 번역전공자의 ChatGPT 관련 인식과 Chat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을 다루었다. 이들 연구는 생성형 AI가 번역 수업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고, AI 산출물에 대한 학습자의 검토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박세미(2025)는 독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 전문번역 수업 모델을 논의하면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TPE) 활동에서 메타인지 전략과 자기조절 번역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한번역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지원(2024)은 중국인 대학원생의 중한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챗GPT 활용 포스트에디팅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고, 강수정(2025)은 학부 중한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 적용 문제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논의하였다. 김혜림(2026)은 생성형 AI 기반 중한 영상 자막 번역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중한번역 교육에서 생성형 AI가 실제 수업 활동에 접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국제적으로도 기계번역을 외국어 학습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Niño(2009)는 외국어 수업에서 기계번역이 단순한 번역 결과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자가 언어 형식과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ALL)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Lee(2020)는 EFL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기계번역 결과와 비교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기계번역 활용이 글쓰기 전략과 수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계번역이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산출물과 비교, 검토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AI 및 기계번역을 번역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AI 산출물의 비판적 검토, 포스트에디팅 활동, 학습자 인식, 교수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AI 산출물의 활용, 포스트에디팅, 학습자 인식에 초점을 두었으며, AI 사용 이전의 직접 번역과 이후의 비교, 재조정 과정

을 하나의 연속된 학습 과정으로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 과정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출력 가설과 언어적 활동, 피드백 모델을 살펴본다.

1) 산출과 언어화(Swain 1985, 2006; Swain & Lapkin 1995)

Swain(1985)의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은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산출이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능력을 다소 넘어서는 산출을 요구받을 때(pushed output), 의미를 이해하는 처리를 넘어서서 그 의미를 실제 언어 형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표현하려는 의미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며(noticing),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 지식과 표현 능력의 한계를 확인한다. 산출 과정에서 인식된 이러한 언어적 문제가 대안을 생성하고 평가하여 산출에 반영하는 인지적 조정을 일으킨다는 점은 Swain과 Lapkin(1995)의 실증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Swain(2006)은 이러한 산출이 단지 언어 능력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사고를 매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언어적 활동(languaging) 개념을 제시하였다. 언어적 활동은 언어를 통해 의미를 만들고 지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학습자가 말하거나 씀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곧 언어적 활동이다. 이 관점에서 학습자가 과제 수행 중 자신의 표현 문제를 말이나 글로 풀어내는 활동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언어 문제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는 학습 과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직접 번역은 중국어 원문을 자신의 언어 자원의

로 처리하여 한국어로 산출하는 활동이며, 번역 난점의 표시와 프롬프트 작성, 자기 분석은 번역 과정에서 인식한 문제를 말이나 글로 드러내고 구체화하는 언어적 활동에 해당한다. 이때 산출과 언어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수행을 확인하고 다음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면과 맞물리며, 이는 뒤에서 살펴볼 피드백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2) 효과적인 피드백(Hattie & Timperley 2007)

Hattie와 Timperley(2007)는 피드백을 학습자의 수행이나 이해의 여러 측면에 있어 어떤 행위자가 제공하는 정보로 정의한다. 이때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자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 책, 부모는 물론 학습자 자신과 경험까지 포함한다. 또한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수용되거나 수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정보이며, 학습자가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스스로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피드백의 교육적 효과는 정보의 제공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피드백의 핵심 기능은 학습자의 현재 수행과 도달하려는 목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Hattie와 Timperley(2007:86)는 이 간극을 좁히는 효과적인 피드백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고 보았으며, 이 질문들은 교수자가 제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스스로 물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다. 세 질문은 학습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Where am I going?, feed up),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How am I going?, feed back),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Where to next?, feed forward)이다. 첫 번째 질문은 학습이 지향하는 목표, 두 번째 질문은 그 목표를 향한 현재의 상태, 세 번째 질문은 목표와 현재 수행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음 활동을 말한다. 세 질문은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현재 수행에 대한 정보(feed back)가 목표(feed up)와 비교되어 다음 단계의 조정(feed forward)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Hattie와 Timperley(2007:90)에 따르면, 피드백의 작용은 네 수준에서

일어난다. 과제 수준(task)은 수행의 정확성에 관한 정보로, 번역으로 말하면 표현의 옳고 그름이나 오류에 해당한다. 과정 수준(process)은 과제를 이해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처리와 전략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탐지하고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기조절 수준(self-regulation)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며 조정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자아 수준(self)은 학습자 개인에 대한 평가로, Hattie와 Timperley는 이 수준의 피드백이 학습에 가장 효과가 낮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과제, 과정, 자기조절 수준에 주목하며, 학습 효과가 낮은 자아 수준은 다루지 않는다.

특히 자기조절 수준은 본 연구의 해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attie와 Timperley(2007:93-94)는 자기조절을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지식 상태, 인지 전략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기 평가(self-appraisal)와 계획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전략을 조정하는 자기 관리(self-management)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자기 평가 능력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즉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메타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자신의 번역과 대조하며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 활용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수업 개요와 활동 절차

본 연구는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중국어 관련 전공에 개설된 ‘AI 중한 번역 연습’ 수업에서 수행된 직접 번역 기반 AI 활용 번역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²⁾ 수강생은 학부 3·4학년 한국어 모어 학습자로, 중국어 학습 기

간은 대체로 2~3년이다. 해당 활동은 중국어 텍스트의 번역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중국어 이해와 표현 능력을 기르고 AI 보조수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함께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때 교수는 활동의 처음부터 최종 번역에 이르기까지 번역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각 단계에서 그 방향을 어떻게 반영할지, AI의 수정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이끌었고, 최종 결정은 학습자가 스스로 내리도록 하였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어 원문을 파악하여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였다. 둘째, 직접 번역 과정에서 어렵다고 느낀 표현이나 문장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였다. 셋째, 교수가 제시한 지침과 프롬프트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직접 번역문과 프롬프트를 AI에 입력하고 보조수정 결과를 받았다.³⁾ 넷째, AI 보조수정 결과를 자신의 직접 번역문과 비교하며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이 비교를 바탕으로 최종 번역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AI 수정 내용의 수용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수업의 기본 원칙은 AI 사용 이전에 학습자의 원문 이해와 직접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결정은 스스로 내린다는 것이었다. 학습자들에게는 생성형 AI 도구로 ChatGPT 무료 버전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수업은 AI 모델의 성능 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도구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았다.

- 2) 전체 수업 과정은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과 AI 초벌번역 기반 포스트에디팅으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 산출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전체 수업 설계와 학습자인식, AI 초벌번역 기반 포스트에디팅 수행 양상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교수는 프롬프트에 번역 방향, 텍스트 주제 영역, 원문 장르, 번역 목적, 번역 문체, 정보 보존 조건, 역할 부여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업 중 예시로 제시한 프롬프트는 기능주의 번역이론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일반 사항을 수업 목적에 맞게 수정 적용한 것이다.

2. 분석 대상과 자료 구성

학습자가 직접 번역을 진행한 중국어 출발 텍스트(source text)는 총 다섯 개이며, T1~T5로 표기한다.⁴⁾ 번호는 수업 진행 순서를 반영한다.

〈표 1〉 번역 활동 출발 텍스트의 구성

구분	주제	텍스트 성격
T1	早茶文化	문화 설명문
T2	青年午校	사회·교육 기사문
T3	行李寄存服务, 让旅行更轻松	관광·서비스 기사문
T4	让“隐形家务”不隐形	사회 문제 기사문
T5	“一亿元”还是“一亿年”?	논설형 사회 기사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는 중국어 출발 텍스트와 학습자의 과제 자료이다. 각 학습자의 과제 자료는 여섯 가지로 구성되며, 활동 단계에 따라 산출된 자료 전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학기 초 연구 자료 활용에 동의한 16명의 학습자가 5개 텍스트에 대해 제출한 총 80건의 과제 세트이다.⁵⁾ 강의안은 수업 맥락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 4) 전체 수업에서는 동일 주제를 기반으로 난이도를 등급화한 두 개의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중급 학습자를 위해 어휘와 통사를 조정한 선행 텍스트(실제 신문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교수자 초고 작성-AI를 통해 HSK 4·5급 수준으로 조정-교수자 검토-원어민 감수), 다른 하나는 실제 중국어권 온라인 매체의 기사에서 선정한 신문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선행 텍스트를 출발 텍스트로 한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의 자료를 분석하며, 본문에서 지칭되는 원문, 출발 텍스트는 모두 학습자가 직접 번역을 진행한 선행 텍스트를 의미한다.
- 5) 본 연구에서 과제 1건은 동일 학습자가 동일 텍스트를 대상으로 제출한 1차시 과제(직접 번역문, 번역 난점 표시)와 2차시 과제(AI 보조수정 프롬프트, AI 수정문, 최종 번역문, 자기분석) 전체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개 텍스트에 대한 16명의 과제 자료, 총 80건의 과제 세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표 2〉 분석 자료의 구성

자료 유형	내용	본 연구에서의 활용
원문	출발 텍스트 T1~T5	번역 난점과 수정 양상 분석의 기준 텍스트
직접 번역문	학습자가 AI 사용 전 작성한 한국어 번역문	원문 이해와 표현상의 난점 확인
번역 난점 표시	번역이 어려웠던 부분과 어렵다고 느낀 이유	학습자의 문제 인식 분석
AI 보조수정 프롬프트	학습자가 실제 입력한 프롬프트	문제 인식의 언어화 분석
AI 보조수정문	AI가 제시한 수정 결과	표현 대안과 수정 양상 분석
최종 번역문	AI 보조수정 후 학습자가 작성한 번역문	AI 수정안의 최종 반영 양상 분석
자기분석	AI 보조수정 전후 비교, 어려운 부분 처리 설명	학습자 판단 과정 확인
강의안	어휘, 연어, 구문, 번역상 주의점, 프롬프트 예시	수업 맥락 및 과제 절차 확인

3. 분석 방법

아래는 분석 기준을 각 활동 단계의 분석 대상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3〉 분석 기준

분석 대상	분석 기준	주요 확인 내용
직접 번역문	원문 이해와 표현 처리	학습자가 원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한국어로 옮겼는가
번역 난점 표시	난점 인식	학습자가 어떤 표현을 어렵다고 인식하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프롬프트	문제 인식의 언어화	번역 방향, 장르, 문체, 가독성, 번역투 제거, 의미 보존, 정보 추가·삭제 방지 등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

분석 대상	분석 기준	주요 확인 내용
AI 보조수정문	수정 양상	AI가 어휘, 문장 구조, 문체, 의미 보존 측면에서 어떤 수정을 제시했는가
최종 번역문	수용, 부분 수용, 거부	학습자가 AI 수정안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거나 배제했는가
자기분석	학습자 판단	학습자가 수정 이유와 최종 선택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각 단계별로 주로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직접 번역문은 오역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습자의 원문 이해와 표현 선택, 문장 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았다. 프롬프트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번역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했는지를 확인하였고, AI 보조수정문에 대해서는 학습자에게 대안으로 제시된 표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최종 번역문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기준으로 AI 수정안을 판단하고 최종 번역을 구성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번역 난점의 유형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전체 과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점을 표시하고, 유사한 성격의 난점을 묶어 잠정적 유형을 설정한 뒤, 다시 자료로 돌아가 각 유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유형을 통합하고 분리하거나 재명명을 통해 최종 유형을 확정하였다.⁶⁾

자료 수집과 분석은 해당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교수자를 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해석 편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 사례의 해석을 학습자의 자기 분석 자료와 대조하고 잠정 유형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본문에 제시되는 사례는 특정 난점 유형이나 수행 양상이 여러 학습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6) 번역 난점은 수업 내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이 과정은 학기 중에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경우를 우선 선정하고, 특정 단계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함께 포함하였다.⁷⁾ 또한 동일 원문이라도 학습자마다 직접 번역문과 AI 수정문이 다르므로, 같은 원문에 대한 사례가 본문과 표에 따라 서로 다른 번역문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분석 자료는 모두 수업 과제에서 산출된 것이어서, 개인 식별 정보 보호를 위해 학습자 이름과 학번을 익명화하고 개별 학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연구 목적, 자료 활용 방식, 익명화 절차, 성적 평가와의 무관성을 설명하고 자율적 동의를 받았다.

IV. 직접 번역과 AI 보조수정 양상

본 장에서는 학습자의 직접 번역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AI 활용 번역 활동이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1. 직접 번역의 난점 인식

직접 번역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표시하거나 설명한 번역 난점은 단순히 개별 어휘의 의미를 모르는 수준은 아니었다. 학습자들은 중국어 원문의

7) 본 연구는 직접 번역에서 난점 인식, 프롬프트 작성, AI 보조수정 결과의 검토, 최종 번역 재조정으로 이어지는 학습자의 수행 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특히 하나의 과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난점과 수정 양상이 함께 나타났고, AI 보조수정 과정에서도 특정 표현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프롬프트 수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과제 세트 수를 기준으로 개별 양상의 빈도를 산출할 경우 실제 수행 과정의 반복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주요 양상을 범주화하고, 대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기본 의미를 파악한 뒤에도 이를 한국어 기사문 또는 설명문에 적합한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표 4>는 학습자가 직접 번역한 후 과제에 기록한 난점 인식 가운데 주요 사례를 발췌하거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다.

<표 4> 직접 번역 단계의 주요 번역 난점

	난점 유형	대표 원문 표현	학습자가 기록한 난점 인식
T1	추상어 자연화	早茶文化展现了人们对生活的喜爱, 也展现了他们对美食的追求	“‘미식에 대한 추구’는 의미 전달은 가능하지만 한국어 기사문에서는 딱딱하고 번역투로 느껴진다”
	상황 표현	人们常常在茶馆里和家人、朋友一起聊天, 气氛十分热闹	“사람들이 찻집에서 대화하는 장면과 신문 기사에 맞는 표현을 생각했을 때 ‘분위기가 활기찼다’보다는 문맥에 따라 热闹에 맞는 더 상황감 있는 표현이 있을 것 같다”
	구문 구조	不只是“吃”和“喝”, 也是一种社交活动	“不只是...也是... 구조를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
T2	신조어 개념어	青年午校	‘청년 점심학교’, ‘청년 낮학교’ 등 사이에서 원문의 신조어성과 의미 전달 방식 고민
	생활 맥락	很多年轻人平时工作很忙, 下班后还要照顾家人, 没有时间学习	“‘가족을 돌보다’가 문맥에서 무겁게 느껴져 가볍게 생활 맥락에 맞는 표현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평가 표현	虽然每次上课只有45分钟, 但很多人感到很有收获	“‘많은 수확이 있다’는 직역투로 느껴져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요하다”
T3	서비스 담화	特别是在换车、还没入住酒店或者已经离开酒店的时候, 这种服务非常有用	“문맥상 직역이 한국어스럽지 않다”
	기사체 표현	现在, “轻装旅行”已经成为一种新的发展方向	“‘새로운 발전 방향’은 딱딱하고 번역투로 느껴진다”

	난점 유형	대표 원문 표현	학습자가 기록한 난점 인식
T4	사회문화 개념어	隐形家务	‘보이지 않는 집안일’, ‘숨은 집안일’, ‘티 안 나는 집안일’,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사이에서 문맥에 더 맞는 표현 고민
	반복·나열 구조	洗碗以后...扫地以后...东西用完以后...	“계속 나열되는 구조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어렵다”
	관용적 표현	对很多人来说, 这些事都是顺手做的小事, 好像不麻烦	“하는 김에 하는 사소한 일’ 말고도 한국어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는다”
T5	논리 구조	这个问题真正想让我们思考的是...	“중국어 어순 그대로 옮기면 문장이 딱딱해져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조로 아예 바꿔야 할 것 같다”
	부정 구조	选择钱的人, 不一定只重视物质生活	“不一定 구조를 한국어에서 ‘만드시 ...인 것은 아니다’로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다”
	반복 구조	看到世界发生很多变化, 看到新的科技和新的城市	“看到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어에서 그대로 반복하면 어색해서 어휘를 바꿔야 한다”
	추상 표현	是眼前的富裕, 还是有更多时间和经历的生活?	“눈앞의 부유함’은 직역투 같아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요하다”

직접 번역 단계의 난점은 개별 어휘의 의미 확인보다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 문맥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학습자들은 追求, 富裕, 收获와 같은 추상어의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한국어 기사문에 적합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병렬 구조, 반복 구조, 부정 구조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문장 구조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정보 배열과 문장 호응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사회문화적 개념어의 번역도 중요한 난점이었다. 青年午校, 隐形家务처럼 한국어에 고정된 대응어가 없는 표현은 문자의 의미를 살릴 것인지, 한국어 독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문화적으로 대응되는 표현

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양상은 직접 번역이 단순한 원문 이해 확인이 아닌, 중국어 원문 의미와 한국어 표현 관습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2. 번역 난점과 프롬프트 작성

직접 번역 단계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난점은 AI 보조수정 단계에서 프롬프트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학습자 프롬프트는 단순히 “번역해 달라”, “수정해 달라”는 요청에 머물지 않고, 번역 방향, 텍스트 주제, 장르, 문체, 원문 의미 보존, 정보 추가·삭제 금지, 번역투 제거, 문장 난이도 조절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번역 문제를 어떻게 언어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5〉 학습자 프롬프트의 주요 수정 요구

요구 유형	프롬프트에 나타난 표현, 조건	분석 초점	텍스트
자연스러운 한국어	“한국인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어미가 자연스럽게”	본인 직접 번역문의 어색함을 한국어 유창성 문제로 인식	T1 T3 T4
번역투 제거	“직역을 피하고”, “번역투 표현 제거”, “어려운 한자어는 쉽게 풀이”	중국어 구조와 한자어식 표현이 한국어에 남는 문제 인식	T1 T3 T5
장르·문체 지정	“신문 기사”, “사회면 기사”, “평어체”, “공적인 태도”, “논설 문체 분위기 유지”	번역문을 특정 장르의 목표 텍스트로 설정	T2 T4 T5
역할 부여	“신문사에서 중국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보내는 역할”, “신문사 사회부 기자”	AI에게 번역 목적, 독자, 장르를 명시	T2 T4
원문 의미 보존	“원문의 의미와 정보는 변경하지 않아줘”, “원본에 어긋나지 않게”	자연화 과정에도 원문 충실성 유지 요구	T1 T5

요구 유형	프롬프트에 나타난 표현, 조건	분석 초점	텍스트
정보 추가·삭제 방지	“빼거나 더하는 정보 없이”, “원문에 없는 내용은 빼고”, “내용을 더 추가하지 말 것”	AI의 과잉 수정과 정 보 확장 가능성 경계	T2 T3 T5
문장 난이도 조절	“문장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이 지 말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	자연스럽지만 과도 하게 어려운 표현은 피하도록 요구	T4 T5
재프롬프 트	문체 적절성, 한자어 어색함, 원 문 없는 내용 추가, 제목 재제 안 등을 다시 요청	AI 결과 검토 후 수 정 기준을 재설정	T3 T5

학습자 프롬프트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요구와 원문 의미 보존 요구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학습자들은 AI에게 단순히 더 유창한 번역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와 정보는 유지하면서 번역투를 줄이고 한국어 기사문에 맞게 다듬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직접 번역문을 단순 오역 수정 대상이 아니라, 목표 장르에 맞게 조정해야 할 텍스트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AI에게 역할(persona)을 부여하거나 독자와 문체를 명시한 프롬프트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신문사”, “사회부 기자”, “한국 독자”, “사회면 기사”와 같은 표현은 번역문이 특정 매체와 독자 환경 속에서 읽히는 텍스트라는 점을 학습자가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재프롬프트 사례에서는 AI의 1차 결과를 확인한 뒤 문체로서의 적절성, 한자어식 표현, 정보 추가, 제목 처리 등 수정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3. AI 보조수정 결과의 활용

본 절에서는 학습자가 문제로 인식한 부분에서 AI 보조수정 결과가 어떤 수정 양상을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6〉 AI 보조수정 결과의 주요 수정 및 문제 양상

수정 양상	원문, 직접 번역상의 문제	AI 보조수정 방향	텍스트
어휘 자연화	对美食的追求를 ‘미식에 대한 추구’는 직역투	‘음식에 대한 관심’, ‘미식에 대한 열정’ 등으로 조정	T1
상황 표현 조정	气氛十分热闹에 대한 한국어가 문맥상 맞지 않음	‘복적이다’, ‘화기애애하다’ 등 다양한 표현 제시	T1
평가 표현 자연화	很有收获를 ‘수확이 있다’는 직역투	‘보람을 느끼다’, ‘얻는 것이 많다’ 등으로 조정	T2
서비스 담화 용어화	还没入住酒店/已经离开酒店的 직역이 한국어 서비스 담화와 어긋남	맥락상 ‘체크인 전/체크아웃 후’로 조정	T3
서비스 명칭 조정	自助行李寄存服务, 寄存柜	‘셀프/무인 짐 보관 서비스’, ‘보관함’ 등으로 정리	T3
기사체 표현 조정	新的发展方向의 직역이 딱딱함	‘새로운 여행 트렌드’, ‘새로운 흐름’ 등으로 조정	T3
문장 재구성	既能…也能…还能… 병렬 구조가 길고 딱딱해짐	한국어 수식 구조와 연결 방식에 맞게 재배열	T5
반복 구조 정리	洗碗以后…扫地以后…东西用完以后…의 반복 구조	예시 나열은 유지, 한국어 접속과 호흡에 맞게 정리	T4
관용적 표현 조정	顺手做的小事의 직역이 어색함	‘하는 김에 하는 사소한 일’, ‘겸사겸사 하는 일’, ‘손 가는 대로 하는 작은 일’, ‘별생각 없이 하는 작은 일’ 등으로 조정	T4
개념어 재구성	隐形家务의 고정 대응어 부재	‘보이지 않는 집안일’, ‘숨은 집안일’,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등 제안	T4
표현수준 조정	辛苦地劳动의 직역이 무거움	‘힘들게 일하다’ 등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조정	T4
정보 추가	这种服务是为了让旅行更方便의 직역투	‘이 서비스는 여행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로 원문에 없는 ‘여행객’ 정보 추가	T3
어조 약화	其实, 这个问题没有标准答案 원문의 논평적 어조	‘이 문제는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로 바뀌며 원문보다 어조 약화	T5

AI 보조수정 결과는 주로 어휘 자연화, 문장 재구성, 문체 조정, 문화어·개념어 처리에서 나타났다. AI는 학습자의 직접 번역문에 남아 있던 한자 어식 표현이나 직역 구조를 한국어 문맥에 맞게 조정하고, 관광·서비스 기사문이나 사회면 기사에 어울리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특히 T3에서는 서비스 답화에 맞는 용어화가, T4에서는 문화어와 사회문화적 개념어의 재구성이, T5에서는 추상 표현과 병렬 구조의 조정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AI 수정문에 원문에 없는 정보가 추가되거나 원문의 어조가 약화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원문 ‘这种服务是为了让旅行更方便’을 학생이 ‘이런 서비스는 여행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직접 번역하면서 직역투를 문제로 인식했는데, AI는 ‘이 서비스는 여행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문에 없는 ‘여행객’이라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4. 최종 번역문의 수정 반영 양상

본 절에서는 최종 번역 단계에서 학습자가 AI 수정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AI 보조수정 결과를 확인한 뒤 학습자는 제시된 수정안 가운데 일부는 그대로 반영하고, 일부는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여 다시 조정했으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직접 번역을 유지하였다. 이에 최종 번역문과 AI 보조수정문을 대조한 결과를 수용, 부분 수용, 거부의 세 가지 처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수용은 AI 수정안이 최종 번역문에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경우이며, 부분 수용은 수정안의 일부를 반영하면서 나머지 표현을 학습자가 다시 조정한 경우이다. 거부는 AI 수정안을 최종 번역문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 번역 표현을 유지한 경우이다.

〈표 7〉 AI 수정안에 대한 최종 번역문의 처리 유형

처리 유형	대표 표현, 사례	최종 번역문의 처리 내용
수용	对美食的追求	직접 번역: ‘음식에 대한 추구’→AI의 수정문 ‘음식에 대한 관심/열정’ 제안→‘음식에 대한 관심’
	还没入住酒店 / 已经离开酒店	직접 번역 ‘호텔에 입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호텔에서 떠났을 때’→AI의 수정문 ‘체크인 전/체크아웃 후’ 수용 반영
	辛苦地劳动	직접 번역 ‘고되게 노동하다’→AI 수정문 ‘힘들게 일하다’ 수용 반영
부분 수용	“一亿元”还是“一亿年”?	제목에 대한 직접 번역 ‘1억 위안’ 아니면 ‘1억 년’?→AI 수정문 ‘1억 위안’인가, ‘1억 년’인가→기사 제목성 고려하여 “‘1억 위안’인가, ‘1억 년’인가... 당신의 선택은?”으로 재구성
	这种服务是为了让旅行更方便	직접 번역 ‘이러한 서비스는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AI가 ‘이 서비스는 여행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로 제안→‘이 서비스는 여행의 편의를 높여 준다’로 조정
	现在, “轻装旅行”已经成为一种新的发展方向。	직접 번역 ‘가벼운 차림의 여행’/‘새로운 발전 방향’→AI는 ‘가벼운/간편한 여행’/‘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수정 제안→‘이제 ‘간편 여행’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로 조정
	随着时间的推移, 茶馆越来越多, 环境也越来越好。	직접 번역 ‘시간이 지나면서, 찻집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환경도 좋아졌다’→AI는 ‘시간이 흐르면서 찻집 수가 늘고 시설과 분위기도 한층 개선됐다’→‘시간이 지나면서 찻집 수가 늘고 환경도 개선됐다’
거부	其实, 这个问题没有标准答案	AI 수정문 ‘이 문제는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거부→직접 번역문 ‘사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그대로 유지
	一亿元	AI의 ‘1억 원’ 번역은 독자 친숙성은 높지만 화폐 단위 정확성 문제 발생→원안 ‘1억 위안’으로 유지
	茶馆主要提供茶水	AI 수정문 ‘찻집에서는 주로 차를 판매하였다’ 거부→직접 번역문의 ‘제공하였다’ 유지

수용은 AI 수정안이 원문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나 장르 적합성을 높인다고 학습자가 판단한 경우에 나타났다. 이 경우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최종 번역문에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반면 부분 수용은 AI 수정안이 유용한 대안을 제공하지만, 학습자의 번역 의도나 전체 문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났다.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수정 가운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도, 원문의 의미나 문체, 표현의 적합성을 다시 검토하여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습자는 AI의 1차 수정 결과에서 새롭게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수정 조건을 구체화하거나 재프롬프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부분 수용은 AI 수정안을 절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를 다음 수정 방향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거부는 AI 수정안이 원문의 어조, 정보 범위, 개념적 의미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다고 학습자가 판단한 경우에 나타났다. 특히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원문의 어조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AI 수정안을 최종 번역문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 번역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최종 번역문은 AI 보조수정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학습자가 개별 수정안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구성한 결과물이었다.

아래는 한 학습자 자료 예시를 통해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 번역문은 모범답안이나 최상의 번역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번역문과 AI 수정안을 비교하고 재조정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표 8〉 직접 번역 기반 AI 보조수정 활동의 단계별 변화 사례

활동 단계	자료 내용	분석 초점
원문	特别是在换车、还没入住酒店或者已经离开酒店的时候, 这种服务非常有用。/现在, “轻装旅行”已经成为一种新的发展方向。	호텔 이용 전후 상황과 서비스 담화 표현, 기사체 표현 처리 필요
직접 번역	특히 차를 갈아타거나 아직 호텔에 입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호텔을 떠났을 때, 이러한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 현재 ‘가벼운 차림의 여행’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되었다.	원문 의미는 전달되지만 한국어 서비스 담화와 기사체 표현으로는 다소 직역투
난점 인식	직역보다 호텔 이용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요, ‘새로운 발전 방향’은 한국어 기사문에서 딱딱하게 느껴짐, ‘가벼운 차림의 여행’은 압축 필요	중국어 설명식 표현과 한국어 장르 관습 사이의 차이 인식
프롬프트 작성	원문의 의미와 정보는 유지하되, 한국인 독자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투를 줄이고 기사체에 맞게 다듬어 달라고 요청	직접 번역 단계의 문제 인식이 수정 요구로 언어화
AI 보조수정	‘체크인 전/체크아웃 후’, ‘새로운 여행 트렌드’, ‘가벼운/간편한 여행’ 등으로 수정 제안	한국어 서비스 담화와 기사체에 맞는 대안 표현 제시
최종 번역	특히 환승 시, 호텔 체크인 전, 또는 체크아웃 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다. 이제 ‘간편 여행’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수정안을 문맥에 맞게 재조정
자기분석	AI 보조수정 결과를 통해 직역투 표현이 줄고, 한국어 독자에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판단	AI 보조수정문을 최종 정답이 아니라 비교, 점검 자료로 활용

이 사례에서 학습자는 직접 번역 단계에서 드러난 표현상의 문제를 프롬프트 조건으로 옮기고, AI 보조수정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번역문을 다시 조정하였다. 따라서 표8은 직접 번역, 난점 인식, 프롬프트 작성, AI 보조수정, 최종 번역 재조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수행은 직접 번역에서 드러난 난점이 프롬프트와 AI 보조수정 비교를 거쳐 최종 번역문 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V. AI 중한번역 수업의 교육적 의미

앞 장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은 학습자가 직접 번역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프롬프트로 수정 기준을 명시한 뒤, AI 수정안을 그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재조정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연쇄 과정이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산출과 언어화, 피드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1. 산출과 언어화: 직접 번역과 프롬프트 작성

직접 번역을 먼저 수행하게 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원문 이해 정도와 표현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였다. AI 번역을 먼저 접하면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표현하기 어려운지 자각하기 어렵다. 반면 직접 번역을 선행하면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언어 자원으로 중국어 원문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전환해야 하며, 그 결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번역문에 드러난다. 이는 Swain(1985)의 출력 가설이 말하는 산출의 기능과 맞닿는다. 학습자는 산출 과정에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의미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의 불일치를 인식하게 되며(noticing), 이 인식이 이후 자신의 번역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학습자들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한국어 기사문이나 설명문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어의 병렬, 반복, 부정 구조를 한국어 문장에 자연스럽게 배열하고 호응시키는 과정에서 난점을 보였다. 직접 번역은 이처럼 학습자의 언어 자원과 그 한계를 가시화하는 산출 활동으로 기능하였다.

이렇게 인식된 문제는 프롬프트 작성 단계에서 언어로 드러나고 구체화되었다. 학습자는 자신의 번역에서 어색하다고 느낀 부분, 원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AI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명시화하는 언어적 활동(languaging)에 해당한다(Swain 2006). 학습자의 프롬프트는 단순한 번역 요청에 머물지 않고 번역 방향, 텍스트 주제, 장르, 문체, 원문 의미 보존, 정보 추가·삭제 금지, 번역투 제거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였다. 한 학습자는 원문의 의미와 정보는 유지하되 한국인 독자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투를 줄이고 기사체에 맞게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기사체”, “원문 정보의 보존”이라는 조건들은 학습자가 지향하는 번역의 목표가 언어로 정리된 것이다. 즉 프롬프트는 단순한 AI 조작 명령이 아니라, 학습자의 번역 목표와 문제 인식이 언어로 구체화된 자료이다.

이 점에서 직접 번역과 프롬프트 작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번역 수행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적 활동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직접 번역을 통해 자신의 언어 자원의 한계를 산출로 드러내고, 프롬프트 작성을 통해 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언어로 정리한다. 이렇게 산출되고 언어로 드러난 자료인 직접 번역문, 난점 표시, 프롬프트, 자기분석은 학습자 자신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는 이어지는 피드백 활동에서 AI 보조수정문과 대조되는 근거가 된다.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직접 번역 선행이 갖는 의미는 바로 AI 산출물을 검토할 수 있는 학습자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우게 한다는 데 있다.

2. 피드백 학습: 점검 자료로서의 AI 보조수정문

앞 절에서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는 그 자체로는 피드백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이 AI 보조수정문과 대조되도록 수업 절차 안에 배치될 때 비로소 피드백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과정을 Hattie와 Timperley(2007)의 세 질문인 feed up, feed back, feed forward에 맞추어 해석한다. 세 질문은 4장의 단계별 활동에 일대일 대응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Hattie와 Timperley(2007:90)의 논의에 부합한다.

1) feed up: 번역 목표의 인식

첫 번째 피드백 질문인 ‘어디로 가야 하는가(feed up)’는 학습자가 지향하는 학습 목표에 관한 것이다. Hattie와 Timperley(2007:87)는 교수자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학습자는 이를 인식하고 자기 것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번역 목표는 두 경로로 형성되었다. 교수자는 번역 활동에 앞서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번역 시 고려할 조건인 원문 의미 보존, 정보 보존, 도착어 문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학습자는 직접 번역과 프롬프트 작성 과정에서 이 방향을 자신의 구체적인 번역 목표로 조정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프롬프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기사체”, “원문 정보의 보존”과 같은 조건은 곧 학습자가 스스로 세운 번역 목표이다. Hattie와 Timperley(2007:86)가 강조하듯 이 목표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제시한 기본 방향을 학습자가 자신의 번역 문제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며, 이렇게 세워진 목표는 이후 AI 보조수정문을 검토하는 근거가 된다.

2) feed back: 현재 수행의 점검

두 번째 피드백 질문인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feed back)’는 학습자

가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전했는지에 관한 정보이다(Hattie & Timperley 2007:86). 본 연구에서 AI 보조수정문은 이 feed back의 자료로 기능하였다. Hattie와 Timperley(2007:81)에 따르면 feed back은 교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동료, 책, 학습자 자신을 포함한 여러 행위자가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 관점에서 AI 보조수정문은 학습자의 직접 번역문과 대조될 때 하나의 피드백 정보가 된다. 앞서 밝혔듯 AI 산출물 자체가 곧 피드백인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학습자의 번역과 비교되도록 수업 절차 안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AI 수정문을 자신의 번역문과 대조하면서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워졌는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문 의미가 유지되었는지, 정보가 추가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앞서 학습자가 프롬프트로 세운 목표가 여기서 현재 수행을 점검하는 근거가 된다.

이 점검은 주로 과제 수준(task)과 과정 수준(process)에서 이루어졌다. AI 수정문이 어휘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을 드러낼 때 이는 수행의 정확성에 관한 과제 수준의 정보였고, 문장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번역 전략을 바꾸도록 이끌 때는 과제를 완성하는 방식에 관한 과정 수준의 정보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자신의 직역투 표현이 AI 수정문에서 기사체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두 표현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번역이 목표 문체와 어떻게 어긋났는지 파악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AI 수정문을 언제나 자신의 직접 번역문보다 더 적절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AI 수정문이 직역투나 어색한 문장 구조를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원문에 없는 정보가 추가되거나 원문의 어조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Hattie와 Timperley(2007:101)는 학습자가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비로소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AI 수정문의 문제를 식별해 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번역 목표에 비추어 그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AI 보조수정문은 최종 정답이 아니라, 학습자가 현재 수행을 점검하고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때 피드백으로서

의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3) feed forward: 다음 방향의 설정

세 번째 피드백 질문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feed forward)’는 목표와 현재 수행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다음 활동에 관한 것으로, Hattie와 Timperley(2007:90)는 이 질문이 학습 이득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feed forward는 재프롬프트와 최종 번역 재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AI의 1차 보조수정 결과를 확인한 뒤 문체가 번역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거나, 원문에 없는 정보가 추가되거나, 특정 표현이 여전히 어색하다고 판단하면 수정 조건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프롬프트는 AI 결과를 일회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문제를 다음 수정 방향으로 연결한 수행으로 볼 수 있다. 즉 feed back을 통해 현재 번역과 목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수정 요구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feed up, feed back, feed forward는 서로 분리된 단계라기보다 하나의 연속적인 피드백 과정으로 작동하였다.

최종 번역 재조정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번역문의 실제 선택으로 이어졌다. 학습자는 AI 보조수정안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제시된 수정안을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최종 번역문을 다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문 의미,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 장르 적합성, 정보 보존, 독자 이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화폐 단위와 같은 사실 정보가 잘못 처리되거나 원문의 어조가 바뀐 경우에는 AI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거나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논설형 텍스트의 ‘一亿元’을 한국 독자에게 친숙한 화폐 단위로 바꾸면 독자에게는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문의 사실 정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AI 보조수정이 기존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학

습자는 이러한 지점에서 독자 친숙성과 원문 정보의 정확한 보존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다시 판단해야 했다.

이러한 판단은 Hattie와 Timperley(2007:93)가 제시한 피드백의 자기조절 수준과도 연결된다. 이들은 자기조절을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전략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계획과 오류를 수정하고 이후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여러 번역 대안 가운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한 것은 이러한 자기조절적 피드백 활용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AI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학습자의 번역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표현을 최종 번역에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몫은 학습자에게 있다. 이 점에서 최종 번역 재조정은 AI 활용 번역 학습의 핵심이 결과의 획득이 아니라 그 결과를 검토하고 선택하는 판단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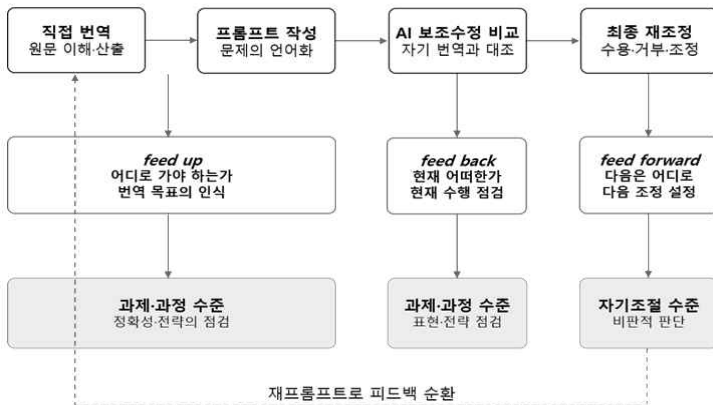
3. 산출과 피드백의 순환

지금까지 살펴본 두 논의는 하나의 순환으로 맞물린다. 학습자는 직접 번역으로 자신의 언어 자원과 한계를 산출하고, 프롬프트 작성으로 그 문제를 언어화한다. 이렇게 언어화된 자료는 AI 보조수정문과 대조되며 번역 목표를 세우고(feed up), 현재 번역을 점검하며(feed back), 그 차이를 근거로 다음 수정과 최종 선택을 결정하는(feed forward) 피드백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언어적 활동이 학습자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피드백이 그 자료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순환은 앞서 제시한 한 학습자의 사례(〈표 8〉)에서 단계적으로 확인된다. 이 학습자는 직접 번역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 ‘가벼운 차림의 여행’과 같은 표현이 한국어 기사문에 어색하다는 것을 산출을 통해 인식하고(산출), 그 문제를 “번역투를 줄이고 기사체에 맞게 다듬어 달라”는 프롬프트로 언어화하였다. 이 프롬프트에 담긴 조건은 곧 학습자가 세운 번역 목표이다(feed up). 이어 학습자는 AI가 제시한 ‘체크인 전/체크아웃

후’, ‘새로운 여행 트렌드’와 같은 대안을 자신의 직접 번역문과 대조하며 현재 수행을 점검하였고(feed back), 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간편 여행’으로 재조정하여 최종 번역문을 구성하였다(feed forward). 이 마지막 재조정 순간에 학습자는 자신이 세운 목표인 원문 의미 보존과 기사체 적합성을 다시 소환하여 판단하였으며, 이는 세 질문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판단 안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이 관점은 AI 활용 번역 수업의 교육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그 의미는 AI가 산출한 번역의 품질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산출과 언어화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비추어 AI 산출물을 검토하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자의 판단이 요구되고, 이 판단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번역 수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AI 활용 번역 활동은 AI 사용 여부 자체보다, 학습자가 먼저 직접 산출하고 이를 AI 보조수정문과 비교하여 자신의 번역을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수업을 설계할 때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림 1> 직접 번역 기반 AI 활용 수업의 피드백 순환⁸⁾

VI. 결론

본 연구는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직접 번역을 선행한 AI 활용 번역 활동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AI 중한번역 연습’ 수업에서 16명의 학습자가 5개 중국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접 번역문, 번역 난점 표시, 프롬프트, AI 보조수정문, 최종 번역문, 자기분석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직접 번역 단계에서 어휘 의미, 구문 구조, 문화어·개념어, 장르 문체와 관련된 난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난점은 이후 프롬프트 작성 과정에서 수정 요구로 언어화되었다. AI 보조수정문은 학습자의 직접 번역문에 대한 표현 대안과 비교 자료로 기능하였고, 학습자들은 이를 최종 번역문에서 일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수용, 부분 수용, 거부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전문적 역할 부여와 재프롬프트는 학습자가 번역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정 조건을 다시 설정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AI의 정보 추가와 어조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일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번역 목표에 따라 점검·재조정했음을 보여주었다.

직접 번역과 프롬프트 작성은 학습자의 문제 인식과 번역 목표를 언어로 드러내었고, AI 보조수정문은 그 목표에 비추어 현재 번역을 점검하고 다음 수정을 결정하게 하는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었다.

학부 중국어 교육에서 AI 활용 번역 활동은 AI가 번역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먼저 원문을 이해하고 직접 산출한 뒤 AI 산출물을 비교, 검토하도록 설계될 때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이 세운 번역 목표에 비추어 AI 산출물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피드백 기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8) <그림 1>은 Hattie와 Timperley(2007)의 모델을 본 연구의 수업 활동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원문 이해, 표현 선택, 자기 점검, 프롬프트 작성, 비판적 AI 사용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수업의 16명 학습자 자료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사례 분석이고, 활동 전후의 중국어 능력 변화나 번역 수행의 장기적 발달을 별도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 집단과 텍스트를 대상으로, 직접 번역 기반 AI 활용 활동이 번역 수행, 프롬프트 작성, AI 산출물 평가 능력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정, <AI시대 학부번역 수업의 기계번역 적용에 관한 연구 - 중한번역 수업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6권 제1호, 2025.
- 김은영, <AI기계번역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방향성 -포스트에디팅 수업 사례를 통해->, 《언어학연구》 제26권 제1호, 2021.
- 김혜림, <생성형 AI 기반 중국어-한국어 영상 자막 번역 교육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6.
- 박세미,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문번역 수업 모델 연구 - 독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9권 제2호, 2025.
- 이선화, <챗GPT를 적용한 번역 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3.
- 이지원, <챗 GPT를 활용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수업 사례 연구: 중국인 대학원생 중·한 번역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4권 제9호, 2024.
- 지윤주·이상빈·이선우,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27권 제3호, 2023.

- Hattie, J., and H. Timperley, “The power of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 no. 1, 2007.
- Lee, S.-M., “The impact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on EFL students’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3 no. 3, 2020.
- Niño, A.,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ers’ and tutors’ perceptions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CALL* 21 no. 2, 2009.
- Swain, M.,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 Gass and C. Madden eds., Rowley, MA: Newbury House, 1985.
- Swain, M., “Languaging, agency and collaboration in advance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Advanced Language Learning: The Contribution of Halliday and Vygotsky*, H. Byrnes ed., London: Continuum, 2006.
- Swain, M., and S. Lapkin, “Problems in output and the cognitive processes they generate: A step towards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6 no. 3, 1995.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I-assisted translation activities in an undergraduate Chinese-to-Korean translation cour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n “AI Chinese-Korean Translation Practice” course offer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6 and include direct translations, marked translation difficulties, prompts, AI-assisted revisions, final translations, and self-analyses produced by 16 learners for five Chinese

texts. Rather than treating AI output as a finished translation, the study focuses on how learners identified problems in their own translations, formulated those problems in prompts, compared AI-assisted revisions with their initial drafts, and revised their final transl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learners recognized difficulties related to lexical meaning, syntactic structure, culture-specific expressions, and genre-appropriate Korean expression during the direct translation stage. They then used prompts to make these difficulties explicit and, in the final revision stage, selectively accepted, partially accepted, or rejected AI sugges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I-assisted translation activities can function as a feedback-based learning activity when embedded in a sequence of source-text comprehension, problem identification, prompt writing, comparison, and revision. In such a sequence, learners first produce their own translations and then examine and adjust them against self-set goals by drawing on AI output as feedback. In this sense, such activities can support learners' source-text comprehension, expression selection, self-monitoring, and critical use of AI.

Key Words : 중한번역 교육(Chinese-Korean translation education), AI 활용 번역(AI-assisted translation), AI 보조수정(AI-assisted revision), 프롬프트 작성(prompt writing), 언어적 활동(languaging), 피드백 기반 학습(feedback-based learning)